

영-일 CEPA 체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목 차

요 약

I. 영국의 무역 및 투자 현황

- 1 | 1. 영국의 수출입 전반
- 2 | 2. 영-일간 교역
- 7 | 3. 한국과 일본의 대영 수출 비교

II. 영-일 CEPA 세부 내용

- 12 | 1. 영-일 CEPA 주요 내용
- 18 | 2. 영-일 CEPA vs EU-일 EPA 비교
- 19 | 3. 영-일 CEPA 체결 의의
- 22 | 4. CEPA 협정 체결에 대한 양국의 주요 반응

III. 영-일 CEPA로 인한 우리 기업의 영향

- 26 | 1. 관세 철폐에 따른 우리기업의 품목별 대영 수출 경쟁력 분석
- 31 | 2. 일본의 대영 수출 상위 산업군 전망

IV. 시사점 및 대응 방향

- 32 | 1. 시사점
- 35 | 2. 우리기업 대응방향

V. 기타 참고자료

- 38 | 일본진출 영국기업 현황

요약

I 영국의 무역 및 투자 현황

○ 상품 및 서비스

- 영국은 상품무역적자가 크며 2019년 상품 수입은 5,470억 파운드, 수출은 3,670억 파운드로 상품 수입이 수출을 1,750억 파운드 초과
- 영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50억 달러로 영국의 25대 수입국이며 일본은 약 130억 달러로 15대 수입국으로 영국 내 수입 점유율의 각각 1%, 2%를 차지
- 2018년 영국의 서비스 수출 총액은 1,853억 파운드였으며 수입 총액은 921억 파운드, 이중 한국으로부터 서비스 수입은 약 15억 달러였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76억 달러임

○ 영-일 투자

- 영-일 양국은 각 국가의 주요 투자자이며 일본은 영국에 892억 파운드, 영국은 일본에 175억 파운드 투자(2018년 기준)
- 영국의 대일 투자는 금융보험업 및 도소매업 등의 비제조업 투자 중심이며 영국기업의 일본진출은 일본을 포함 아시아 국가에서의 시작확대를 위한 거점 설립이 주를 이룸
- 일본의 대영 직접투자는 2019년 전년대비 약 70% 감소, 전세계적으로 일본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대영 투자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감소세가 지속

II 영-일 CEPA 세부 내용

- 기존 EU-일 EPA를 계승, 디지털 무역, 금융서비스, 원산지규칙 등의 영역에서는 EU 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타결

* 2020.5.13 영국 정부의 협상 목표 발표 이후 7번의 협상을 거쳐 2020.9.11. 원칙적 합의, 2020.10.23. 정식 서명

<EPA 협정 주요내용>

- (상품양허) 15년에 걸쳐 99%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 (원산지 규칙) EU산 재료 및 부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 기존 공급망 보호
- (지리적 표시) 영국의 GI 상품 70개로 확대, 일본은 48개 허용
- (관세율할당(TRQ)) 우선순위 10개 관세율 할당 제품 목록에서 특혜 관세율 적용
- (시장접근) EU-일 간 상호인정협정(MRA) 유지, 원산지 활용 서류작성요건 간소화
- (투자) 투자 확실성, 시장접근 보장
- (디지털&데이터) 개방형 디지털 시장, 데이터 경제, 디지털 무역 촉진, 소비자 및 비즈니스 지원
- (정부조달) 정부조달에 관한 WTO협정에 따른 보장 외에 추가적인 시장 접근

Ⅲ 영-일 CEPA로 인한 우리 기업의 영향

- 관세 철폐에 따른 품목별 대영 수출 경쟁력 영향
 - 수출경합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인해 영국으로의 수출 환경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자동차) EU-일 EPA와 더불어 영-일 CEPA 발효 이후 관세 인하 혜택으로 인해 일본의 대영 수출경쟁력 상승 가능성이 있음
- * 자동차(7년째 단계적철폐), 축전지(대부분 품목 즉시철폐), 터보제트, 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 터빈(즉시철폐), 차량용 부품(최대 5년째 단계적철폐)
- 일본의 대영 수출 상위 산업군
 - 공업품 중심인 대영 수출은 광공업품 100% 관세 철폐에 따라 기계 및 기기분야 수출 확대 전망
 - EU-일 EPA 내 단계적 철폐 품목인 철도용차량 및 부품, 터보제트 및 부품에 대한 관세가 영-일 CEPA에서는 즉시 철폐로 적용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통한 시장진출 노력이 활발해질 전망

Ⅳ 시사점

-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인 영국의 통상 기조에 따라 향후 EU 외 국가와의 상품 및 서비스 교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은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우리 기업은 한-영 FTA를 통해 선제적으로 선점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영국의 소비자 및 산업 수용에 맞춘 수출 전략과 제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1월 1일부터 독자적 관세체계를 추진하는 영국이 관세율표를 단순화하고 관세를 철폐 혹은 인하함에 따라 대영 수출 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기업의 동향 파악도 중요

I

영국의 무역 및 투자 현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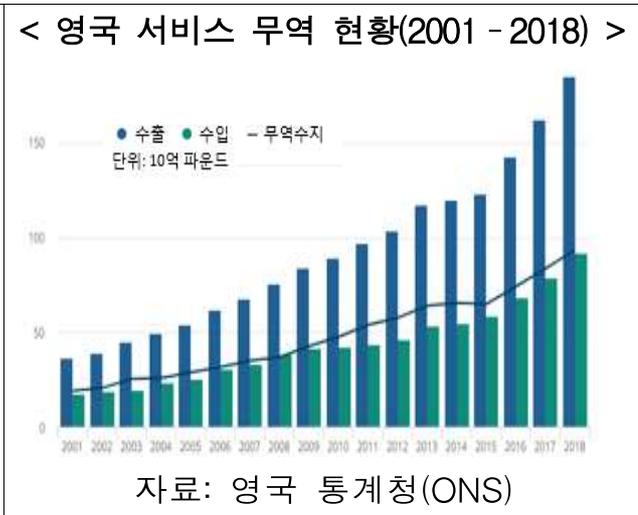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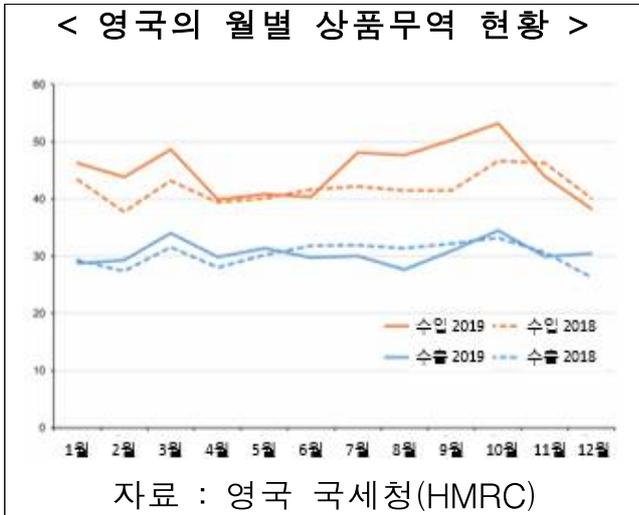
영국의 수출입 전반

□ **영국의 상품무역 현황**

- 영국은 무역적자가 큰 국가로 2019년 상품 수입이 수출을 1,750억 파운드 초과, 상품무역 격차는 2018년 대비 355억 파운드 증가
 - (수입) 2019년 상품 수입은 5,420억 파운드로 2018년도 대비 7.5% 증가
 - (수출) 2019년 상품 수출은 3,670억 파운드로 2018년도 대비 0.7% 증가

□ **영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 영국은 2001년부터 서비스 수출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 2015년 이후 증가 추세임
 - (수입) 2018년 서비스 수입 총액*은 921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17% 증가
 - (수출) 2018년 서비스 수출 총액*은 1,853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14.3% 증가
- * 여행, 운송, बैं킹 산업 제외
- (동향) 영국 디지털 산업의 경제 기여는 2018년 기준 1,490억 파운드를 기록했으며 2017년 대비 디지털 서비스 수출이 14.5%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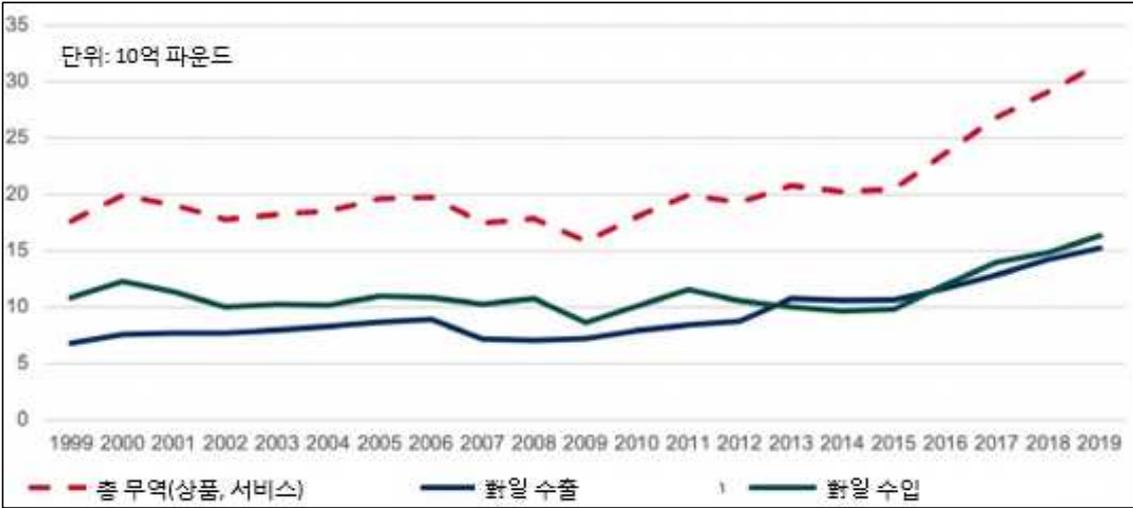


2 영-일간 교역

□ 영-일 무역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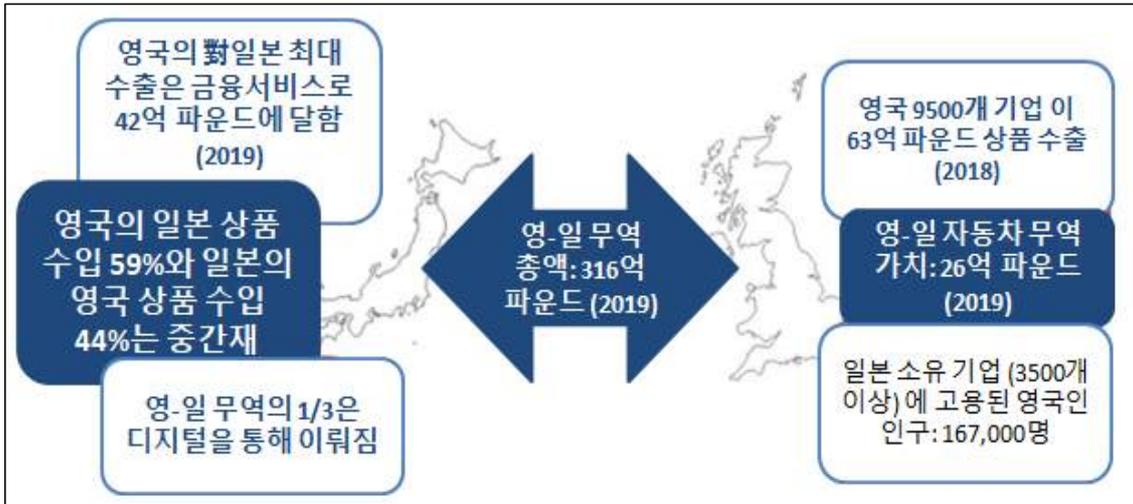
- 양국은 지난 20년 동안 안정적인 무역 파트너였으며 최근 5년간 총무역이 연평균 9.4%씩 지속적으로 증가함

< 영-일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현황(1999-2019) >



- 영국과 일본 간의 총 무역은 2019년 기준 316억 파운드로 영국의 전체 무역에서 2.2%를 차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4%)이 상품무역에 해당

< 영-일간 교역 >



자료: 영국정부(Gov.uk)

- 2019년 영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상품 품목 중 상위 품목은 자동차 (Cars), 기계 발전기(Mechanical power generators), 전기용품(Electrical goods) 순이었으며 수출 품목은 기계 발전기(Mechanical power generator), 자동차(Cars), 의약품(Medicinal & pharmaceutical products) 순으로 많았음

< 영-일 수출입 상위 3위 상품 현황(2019) >

(단위 : 억 파운드)

영국의 대일 수출 품목	수출액	영국의 대일 수입 품목	수입액
전기 발전기	1.2	자동차	1.5
자동차	1.1	기계 발전기	1.1
의약품	0.8	전기용품	0.8
합계	3.1	합계	3.4

자료: 영국정부(Gov.uk)

- 2019년 영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서비스 품목은 지적재산권(IP), 금융 (Financial),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Other business services), 운송 (Transport), 여행(Travel) 순이었으며 수출한 서비스 품목은 금융 (Financial),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Other Business Services), 여행 (Travel), 통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Telecommunications, 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s), 지적재산권(IP) 순으로 많았음

< 영-일 수출입 상위 3위 서비스 현황(2019) >

(단위: 백만 파운드)

영국의 대일 수출 품목	수출액	영국의 대일 수입 품목	수입액
금융	4,216	지적재산권	2,470
기타비즈니스 서비스	1,645	금융	2,404
여행	438	기타비즈니스 서비스	1,154
통신,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407	운송	264
지적재산권	375	여행	221
합계	7,987	합계	6,615

자료: 영국정부(Gov.uk)

- 영국의 일본에 대한 서비스 수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은 금융서비스이며 2019년 기준 42억 파운드를 수출함

□ 영-일 투자 현황

○ 개요

- 영-일 양국은 각 국가의 주요 투자자로 2018년 기준 일본은 영국에 892억 파운드를 투자, 영국에서 6번째로 투자를 많이 한 국가였으며 이는 영국에 대한 전체 외국인 투자의 5.9%에 해당함
- 같은 해 영국은 일본에 175억 파운드를 투자, 일본에 대한 투자국 중 4번째로 큰 규모였으며 이 중 25%를 금융서비스 부문이 차지

○ 영→일 투자

- (규모) 영국에서 일본으로의 대내직접투자(2019년 기준)는 2,613억 엔으로, 총 대내직접투자(1조 5,864억 엔) 중 약 16.5%를 차지
- (업종별) 영국의 대일투자는 금융보험업 및 도소매업 등의 비제조업 투자가 중심으로, '15년 이래 대일투자감소로 관련 분야도 축소 경향을 보였으나 '18년 이후 투자 확대로 전환

< 최근 3년간 영국의 업종별 대일 직접투자금액 추이 >

(단위 : 억 엔)

분야	2017년	2018년	2019년
제조업	302	284	241
화학·의약	-353	166	329

	유리·토석	104	34	-
	철·비철금속	-32	-9	35
	일반기계기구	-62	104	-767
	전기기계기구	574	-12	605
	수송기계기구	62	25	33
	정밀기계기구	-2	-13	-
비제조업		-419	977	2,372
	건설업	26	2	-24
	운수업	2	-	-
	통신업	15	-81	19
	도소매업	-563	1,110	2,501
	금융·보험업	-50	-16	67
	부동산업	160	8	-221
	서비스업	21	-38	22
	합계	-117	1,261	2,613

자료: 일본은행 각 연도별 <국제수지통계>

- (투자 경향) 영국기업의 대일진출목적은 아시아 및 일본지역의 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 설립이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 등 분야의 거점 진출사례가 다수확인

※ 영국의 핀테크 분야 대일 투자진출 사례

○ Transferwise

- (기업개요) 국제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런던 내 본사 소재
- (일본진출 개요) 2014년 6월 일본법인 설립 이후 2016년 9월부 현지 서비스 개시, 2017년 미츠이물산 및 미 투자펀드(Wil)의 출자로 일본사업 확대중
- (주요 추진사업) 동 사는 약 43종의 통화를 실시간 환전할 수 있는 비접촉형 현금카드를 출시할 예정(2020년 연내)으로, 일본 국내의 자금결제법 개정(송금 상한액 규제 완화, 현 100만엔 한도)에 따라 법인 수요 확대 전망

○ Revolut

- (기업개요) 디지털 은행 업무를 취급하는 영국의 유니콘 기업
- (일본진출 개요) 2019년중 일본 내 약 14,000명을 대상으로 환전, 카드결제 등의 테스트서비스를 시행, 동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0월부 일본 내 정식 서비스 개시
- (주요 추진사업) 일본 내 주요 서비스는 해외송금, 외화환전, 카드결제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개 중이며, 최근에는 주식/귀금속 투자 등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

○ 일→영 투자

- (규모) 2019년 일본의 대영 직접투자는 5,622억 엔으로(전년대비 70.1% 감소), 일본의 전체 대외직접투자(2019년 기준 247,068억 엔) 중 약 2.27%를 차지
- (업종별) 통신업(5,753억 엔, 전년대비 Δ 88.5%), 화학/의약분야(3,528억 엔, 전년 대비 +714.8%) 및 도소매업(1,332억 엔, +236.0%) 등 일부 투자확대 분야도 존재하나, 기타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전반에서 투자 규모 축소세

< 일본의 업종별 대영 직접투자 추이 >

(단위 : 억 엔)

분야	2017년	2018년	2019년
제조업	12,755	1,265	5,128
식료품	8,694	15	876
섬유	16	4	-
목재/펄프	-	96	-
화학/의약	662	494	3,528
석유	124	11	-1
유리/토석	183	-86	79
철/비철/금속	158	85	85
일반기계기구	102	56	241
전기기계기구	2,692	-1,232	267
수송기계기구	-81	1,530	-157
정밀기계기구	25	153	7
비제조업	16,274	17,519	494
광업	1,386	2,039	364
건설업	59	-21	-4
운송업	71	120	141
통신업	11,252	50,226	5,753
도소매업	831	564	1,332
금융보험업	-114	-3,623	-2,363
부동산업	741	79	212
서비스업	1,007	-33,194	-6,580
합계	29,028	18,784	5,622

자료: 일본은행 각 연도별 <국제수지통계>

- (투자 경향) 일본기업의 주요 대영투자는 Δ 시장진출을 위한 거점 및 설비투자(NTT데이터, 닛산자동차 등), Δ 기술 확보를 위한 M&A 및 지분 투자(마루베니 등)이 중심
- (최근 동향) 브렉시트 결정('16.6월) 이후 영국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 및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탈영국의 움직임이 관측,

일본의 대세계 투자는 확대되는 반면 대영 투자는 감소세를 보임

< 2019-2020년 일본기업의 주요 대영투자사례 >

기업명	시기	투자금액	투자처
아사히그룹(맥주)	2019년 4월	2.5억 파운드	Fuller, Smith&Turner 고급 맥주 사업 인수
NTT데이터(통신업)	2019년 6월	6,800만 파운드	거점 확대
스노우피크(아웃도어)	2019년 9월	금액 미공개	온·오프라인 거점 설립
마루베니(상사)	2020년 2월	금액 미공개	Carbon Clean Solution 출자
닛산자동차(자동차)	2020년 3월	4억 파운드	선더랜드 공장 설비투자

자료원: JETRO, 세계무역투자동향시리즈 영국편(2020.11.30.)

3 한국과 일본의 대영 수출 비교

□ 상품 수출

○ 수출 규모

- (한국) 2019년 대영 수출액은 약 50억 달러로 영국의 25대 수입국이며, 연도별 추세는 감소 추세에 있음
- (일본) 2019년 대영 수출액은 약 130억 달러로 영국의 15대 수입국이며, 2016년 증가 이후 소폭으로 증감 반복

* 영국의 유럽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중 한국은 11대 수입국, 일본은 5대 수입국

○ 영국 내 수입 점유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영국 내 수입 점유율은 1%를 밑돌며 소폭 감소 중이고 일본은 2%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

< 한국과 일본의 대영 수출규모 및 영국 내 수입점유율 변화(2015-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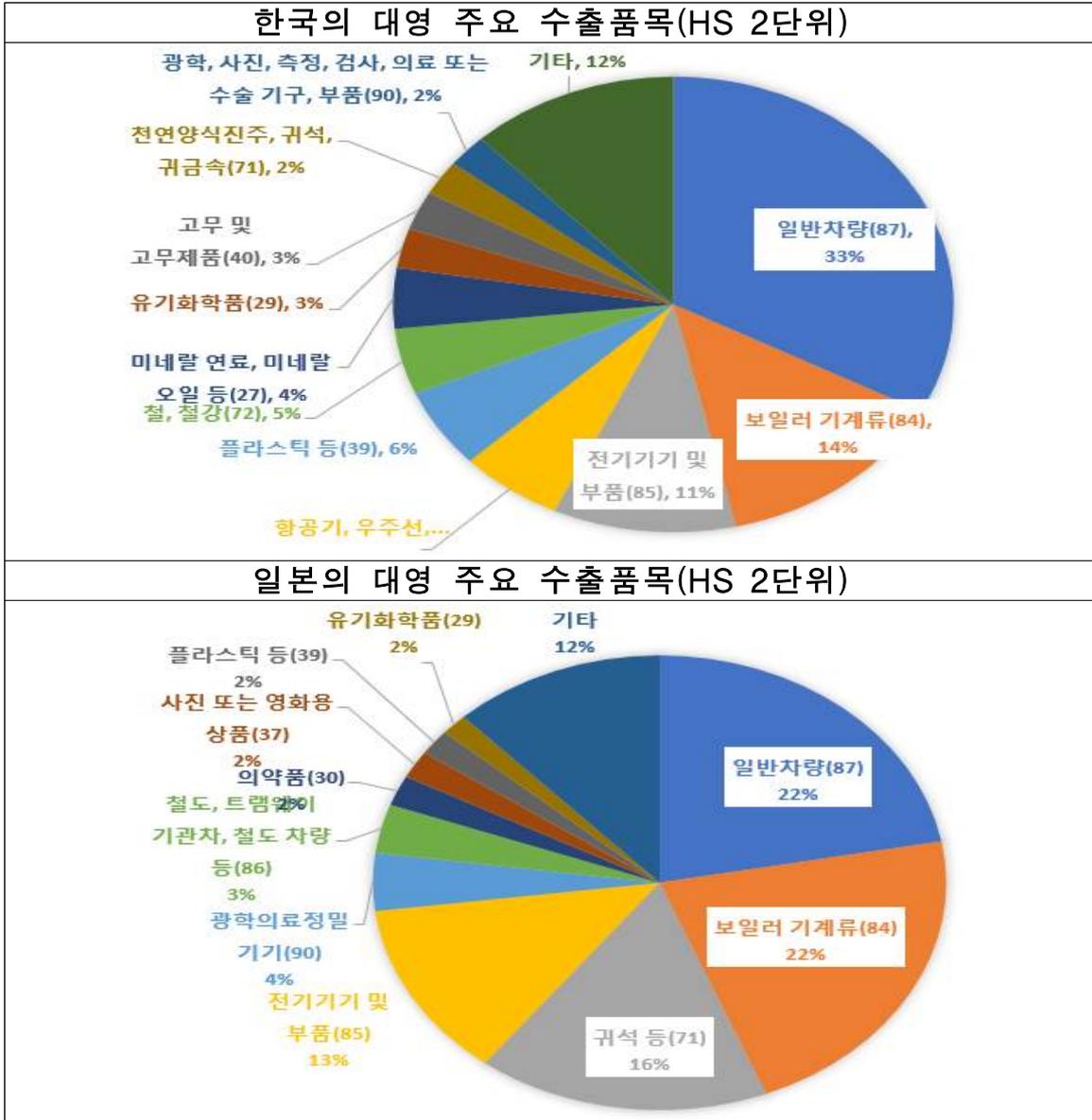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가공

○ 상품수출 주요 품목

- 2019년 대영 한국의 수출은 자동차(HS8703)가 전체 중 29%를 차지했으며, 항공부품(HS8803) 6%, 철,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HS7210) 3%, 석유, 역청유, 조제품(HS2710) 3%, 축전지(HS8507) 3% 순으로 총 수출의 44%에 이룸
- 일본의 경우, 자동차(HS8703)가 전체의 17%를 차지했고, 금(HS7108) 14%, 터보제트 6%, 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 터빈(HS8411) 4%, 차량용 부품(HS8708) 3%, 축전지(HS8507)가 3%로 총 수출의 47%를 차지

< 한국-일본의 대영 수출 주요 품목별 비교(2019년) >



자료: UN Comtrade

- 2019년 데이터 기준, 한-일 양국의 대영 수출 상위 12개 품목 중 5개 품목이 중복되며 해당 품목은 ▲자동차(HS8703), ▲축전지(HS8507),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 터빈(HS8411), ▲차량용 부품(HS8708), ▲불도저, 앵글도저(HS 8429)임

< 대영 한국과 일본의 상품 수출 주요 품목 >

(단위: 백만 달러)

	한국			일본		
	HS코드	품목 설명	수입액	HS코드	품목 설명	수입액
1	8703	자동차	1,479	8703	자동차	2,181
2	8803	항공 부품	298	7108	금	1,765
3	7210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67	8411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 터빈	788
4	2710	석유, 역청유, 조제품	163	8708	차량용 부품	582
5	8507	축전지	138	8507	축전지	443
6	8411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 터빈	135	8429	불도저, 앵글도저	439
7	8517	전화기	125	8603	자주식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	349
8	4011	고무 공기타이어	121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	251
9	8473	기계용 부품	113	7110	백금	234
10	8708	차량용 부품	105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	203
11	8429	불도저, 앵글도저	69	8409	엔진(0807, 8408)용 부품	189
12	8431	기계용 부품	55	8528	텔레비전 수신기 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 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149

자료: UN Comtrade

○ 상품 수출 구조

- 한국과 일본의 대영 수출을 생산 공정별로 구분하면 1차 상품의 수출 비중이 낮고 중간재, 자본재, 자동차 등이 높음

* 중간재/자본재/소비재 분류를 위해 UN 통계국의 상품무역 분류체계인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 사용함. 한국과 일본의 대EU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소비재로 포함하나, 분석 시에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UN기준 준용)

- 한국의 대영 수출에 비해 비중이 높은 일본의 수출은 관세가 즉시 철폐 혹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경쟁우위를 더 높여갈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일본의 대영 수출 품목 생산 공정별(BEC) 세부 비교(2019년) >

(단위: 백만 달러, %)

가공단계 구분	BEC	제품명	한국 수출		일본 수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차 산품	111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5	0	0.43	0	
	21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46	0.9	179	1.38	
	31	연료 및 윤활유	0.9	0	16	0.12	
1차 산품 소계			45.71	0.9	179.43	1.38	
중간재	반제품	121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4	0.07	0.93	0.01
		22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191	23.66	3,837	29.47
		322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4	0.08	133	1.02
	부품 및 부분품	42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것	341	6.77	1,129	8.67
		53	운송장비의 것	902	17.92	2,423	18.61
중간재 소계			2,442	31.481	5,279.36	40.55	
최종재	자본재	41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579	11.5	2,099	16.12
		521	산업용 운송장비	1	0.03	355	2.72
	소비재	112	가정용 식음료 제품	0.7	0.01	3	0.02
		122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53	1.06	48	0.37
		51	승객용 자동차	1,479	29.38	2,181	16.75
		522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1	0	70	0.54
		61	내구성 소비재	62	1.24	84	0.64
		62	반내구성 소비재	72	1.43	109	0.83
		63	비내구성 소비재	82	1.62	218	1.67
		최종재 소계			2,329	76.13	10,228.36
기타	70	기타	217	4.31	137	1.05	
전체			5,034	100.00%	13,022	100.00%	

주 : 생산 공정 분류는 UN 기준 준용

자료 : UN Comtrade, KOTRA 런던무역관 가공

II

영-일 CEPA 세부내용

1

영-일 CEPA 주요 내용

□ 개요

- 영-일 CEPA는 상호 관심 분야에서 EU-일 EPA에 규정된 기존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기반으로 24개 챕터로 구성

- 디지털 무역, 금융 서비스, 원산지 규칙 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는 EU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협의를 이뤄냄
- 영-일 CEPA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제거 또는 감소와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제한함으로써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

< 영-일 CEPA 협상 경과 >

일자	내용	비고
2020.05.13	영국 정부 협상 목표 발표	
2020.06.09	협상 개시 (1차 협상)	화상회의
2020.06.23	2차 협상	화상회의
2020.07.07	3차 협상	화상회의
2020.07.14	4차 협상	화상회의
2020.07.21	5차 협상	화상회의
2020.07.28	6차 협상	화상회의
2020.08.02	7차 협상	화상회의, 최종 협상
2020.09.11	원칙적 합의	화상회의
2020.10.23	정식서명	도쿄
2020.10.23.~	영국 의회 비준 및 입법 절차	
2021.01.01	발효 예정	

□ 상품 양허

- (영국) CEPA 발효 후 대일 수입 전체 품목 86%(수입금액 8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15년에 걸쳐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
- (일본) CEPA 발효 후 대영 수입 전체 품목 84%(수입금액 98%)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15년에 걸쳐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

< 양허 현황 >

양허단계	영국 양허 (일→영)		일본 양허(영→일)	
	관세품목	가치	관세품목	가치
평균세율(MFN)	47%	61%	39%	88%
즉시철폐(2021.1.1.)	49%	20%	45%	10%
15년 내 철폐*	3%	19%	11%	1%
전체 관세 철폐	99%	99%	94%	99%

자료: 영국 정부(Gov.uk)

< 주요 품목 양허 현황(일→영 수출) >

양허 단계	품목 및 양허 내용
즉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섬유) 의류 및 천류, 합성수지 등 ○ (철강) 철강 원자재 및 철강재 부품 등 ○ (비철금속) 알루미늄, 티탄(일부), 관련 공구 등 ○ (가전·기계) 디젤엔진, 산업용 로봇, 가스터빈(일부) 등 ○ (자동차부품) 기어박스, 리튬이온전지, 가솔린엔진 등 92% 품목 ○ (공업제품) 철도용 차량(부품), 터보제트(부품), 전기제어판 등 ○ (정밀기기) 광케이블, 안경, 마이크로미터 등 ○ (농림수산물) 조미료, 소고기, 차, 청과물 등
3년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 의약품 원료, 잉크(일부 8년 적용) 등 ○ (가전·기계) 가로선반, 엔진·터빈류, 에어컨 ○ (이륜차) 500cc 초과 ○ (자동차부품) 범퍼, 클러치, 에어백, 머플러 등 ○ (정밀기기) 카메라용 렌즈
5년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철금속) 알루미늄박(일부), 나이프(일부), 티탄(일부) ○ (가전·기계) 컬러TV, 베어링 일부 ○ (이륜차) 500cc 이하 ○ (자동차부품) 크랭크샤프트, 시트벨트, 서스펜션 등 ○ (정밀기기) 회전계, 스트로보스코프 ○ (농수산물) 아이스크림(70% 삭감)
7년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승용차, 트럭, 원동기 포함 샤시 ○ (농수산물) 냉동가리비
12년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버스, 트랙터 등 일부

자료: 일본 외무성, 일EU EPA 관세교섭 결과, 영일 EPA 관세교섭 결과

□ 원산지 규칙

- 기존 공급망 보호 및 특정 품목에 대한 특혜 관세 적용
 - 영국 기업의 제조 및 가공 기업이 일본으로 수출시 EU산 재료/부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공급망을 보호
 - 영-일 CEPA는 EU-일 EPA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칙에 합의하여 특정 식품 및 섬유 제품에 대해 특혜 관세를 적용함

- 타 국가산 재료 사용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 보장
 - 제빵 제품, 시리얼 및 설탕 과자류는 EU뿐 아니라 타 국가 재료를 사용해도 일본 수출 시 관세 혜택이 보장됨
 - 의류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 시 상품 재료의 50% 이상이 영국 내에서 공급되는 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영-EU 미래관계협정 연계
 - 영-EU간 무역협정이 타결된다면 일본산 재료를 사용한 자동차를 EU가 영국산으로 인정하게 한다는 조항을 포함

□ 지리적 표시

- 지리적 표시 대상 품목 확대
 - 영-일 CEPA에서는 영-일 제품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것을 규정
 - 영국의 지리적 표시 상품을 기존 7개(EU-일 EPA 적용)에서 70개 이상으로 늘려 일본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함
 - 일본은 48개 품목(육류, 수산물, 과일, 가공품 등)의 지리적 표시(GI) 허용, GI 등록 부담경감, 영국내 일본 식품 브랜드화 도모
- 승인 절차 자동 통과
 - EU-일 EPA에서는 EU가 일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품에 지리적 표시를 적용할 수 없었으나 영-일 CEPA에서는 적격 제품이 자동적으로 일본의 지리적 표시 승인 절차를 통과하도록 함
 -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 약 70개의 영국 지리적 표시 목록을 일본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영국 생산 업체는 신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관세율 할당(TRQ)

○ 관세율 할당 혜택 확대

- 영국은 EU EPA에서 적용된 25개 관세율 할당 중 5개만 혜택을 받아 왔으나 영-일 CEPA에 따라 우선순위 10개 관세율 할당에 대해 EU-일 EPA와 동일한 특혜 관세율 적용 예정이며 영국 수출업체들은 일본의 맥아에 대한 글로벌면세 관세율 할당을 통한 혜택을 지속할 수 있음

< 10개 관세율 할당 목록 >

- TRQ 1: 밀 제품 ■ TRQ 2: 도우 및 케이크 믹스 ■ TRQ 3: 밀 사용 식품 제조용
- TRQ 8: 보리 사용 식품 제조용, ■ TRQ 11: 커피, 차 등 ■ TRQ 12: 식품 제조용
- TRQ 15: 50%이상의 자당 함유 식품 및 코코아 분말을 포함한 식품 제조용
- TRQ 19: 코코아를 함유한 식품 제조용
- TRQ 20: 코코아를 함유한 식품 제조용(초콜릿용) ■ TRQ 25: 치즈

자료: 영국정부(Gov.uk)

○ 관세율 할당 미적용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 기타 농식품 수출의 대부분은 쿼터가 적용되지 않으나 쇠고기, 돼지고기, 체다치즈, 연어 등은 관세가 감소하거나 철폐됨

< 품목별 관세 감소 및 철폐 >

품목	관세변화
쇠고기	MFN 38.5% → 2033년까지 9%로 점진적 감소
돼지고기	MFN 4.3% → 2027까지 0%로 점진적 감소
체다치즈	MFN 29.8% → 2033년까지 0%로 점진적 감소
연어	MFN 2.5% → 발효 즉시 0%

자료: 영국 정부(Gov.uk)

□ 시장 접근

○ EU-일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유지함으로써 연속성 제공

- 영-일 양국은 유럽공동체와 일본 간의 상호인정협정(MRA)을 그대로 영-일 CEPA 의정서로 통합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양국 간 기술 장벽을 줄이고 시장 접근을 쉽도록 함
- 상호인정협정 의정서는 전기 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실험 관행, 의약

품, 통신 및 무선장비 제조 관행 등을 다룸

- 또한, 양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지정된 적합성 평가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 결과를 수락하고 제1당사국의 요건을 준수함을 요구함으로써 무역 촉진

○ 원산지 활용 서류작성요건 간소화

- EPA 원산지 활용 관련 서류작성요건을 EU-일 EPA 대비 완화, 원산지 신고서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한 기업의 EPA 접근성 강화

□ 투자

○ 투자 확실성 및 시장 접근 보장

- 영-일 CEPA를 통해 브렉시트 이후 투자자에 확실성을 보장하여 기존 영-일 투자 관계 강화를 목표로함
- 협정에 각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가/기업에 대한 국가조약 및 최혜국 대우 특정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비차별 대우 및 개방된 시장 접근을 보장
- 양국 기업의 대우를 국내 및 제3국의 기업과 동일하게 유지해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확실성을 보장하고 양국에서의 기업 설립과 운영을 원활하게 함
-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특정 국적의 개인을 임원, 관리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없음
- 투자 전 단계에서 기업에 대한 퍼포먼스 요구사항에 대한 조건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여기에는 최소 수출 한계, 최소 국내 콘텐츠, 국내 산업으로의 기술 이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됨

□ 디지털 데이터

○ 양국은 EU-일 무역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타결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

- 영-일 CEPA는 개방형 디지털 시장, 데이터 경제, 디지털 무역 촉진, 소비자 및 비즈니스 보호를 지원하는 조항을 마련해 금융, 기술, 통신, 전문 서비스 및 창조 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부문에서 영국기업을 지원

< 주요 내용 >

- 부당한 데이터 로컬화 금지
→ 국경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요구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잠재비용 방지
- 양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제한 방지
→ 관할국에 무관하게 양국 간 데이터수집, 처리 및 전송 가능
- 적절한 경우 익명화 처리된 정부 데이터 세트의 공개 장려
→ 혁신 기업에 기회 창출
- 국경간 데이터 전송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 표준 유지
- 암호화 서비스 제공 기업이 상용 시장에 진입하기 전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 정보 또는 기타 독점정보를 주 당국에 전송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요구 금지
→ 무리한 소유권 정보공개 요청으로부터의 암호화 기술 보호 및 암호화 기술사용 개발 제품의 보안 손상 방지
- 개방형 인터넷 액세스 보장
→ 혁신기술 개발 및 온라인서비스 사용자 보호를 위한 개방적이고 안전한 수단

- 또한, 영-일간 디지털 거래 촉진을 확대시키기 위해 알고리즘의 강제 이전 방지, 상호 운용 가능한 전자 인증 및 전자 서명을 장려

□ 정부조달

○ 양국 간 조달 시장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보장

- 정부 조달에 관한 WTO 협정(GPA)에 따른 보장 외에 추가적인 시장 접근 포함

< 영국 축 혜택 >

- 핵심 도시를 포함 지역 수준의 조달 기회에 대한 접근
- 비즈니스 서비스, 보험, 통신, 번역, 사진, 전문디자인, 식음료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 계약에 대한 접근
- 일본 정부 조달전자 포털에 본 협정이 적용되는 일본 조달에 대한 통지 게시
- 'Keishin'기업 평가 절차를 영국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음

2 영-일 CEPA vs EU-일 EPA 비교

□ 개요

○ (무역) 원칙적으로 EU-일 EPA 품목 및 철폐시기 등을 준용하여 영국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는 한편, 즉시철폐 품목 확대를 통해 진출환경을 개선

- (지재권) EU-일 EPA 및 CPTPP 대비 상표권(악의적 상표출원 배제 및 취소) 및 의장권(배타적권리 강화, 의장권 존속기간 확대(25년))의 보호 강화와 함께, △상표권 침해 형사처벌 의무화, △디지털 환경 내 지재권 침해 권리행사 규정 등을 포함하여 양국 지재권 보호를 확대
- (디지털) 기존 EU-일 EPA 규정에 더해 △정보의 국경간 이전 제한 금지, △컴퓨터 등 관련 설비 설치요구 금지, △알고리즘 공개요구 금지, △암호정보 개시요구 및 특정암호 사용요구 금지 등 구체적 규범 추가 (CPTPP 및 미-일 디지털협정과 동일한 수준)

< EU-일 EPA와 영-일 EPA 비교 >

항목		EU-일 EPA	영-일 EPA
무역	관세철폐율	(EU→일) 약 99% (일→EU) 약 94%	(영→일) 약 99% (일→영) 약 94%
	일본산 자동차	단계적 인하('26.2월 철폐)	
	자동차 부품	92%(품목 기준) 즉시 철폐	즉시 철폐 대상을 일부 확대
	농림수산	치즈, 버터, 맥아 등 25품목 수입 할당량을 설정	별도 수입 할당량 없음 * 블루치즈 등의 경우 EU할당량 여유 발생시 저관세 적용
디지털		소스 코드 공개요구 금지	알고리즘 공개요구 금지(추가)
지리적 표시(GI)		일본 전통주, 위스키, 고베 소고기 등을 보호	

자료: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 자료 종합

3 **영-일 CEPA 체결 의의**

□ 영-일 CEPA 체결이 영국에 미치는 영향

- 경제적 영향

① 경제 전반

- 영국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가 15년간 15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영국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과의 무역협정은 영국의 GDP를 15년에 걸쳐 약 0.07%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영국 근로자의 임금을 8억 파운드 증가시킬 것이라 예측
- * 영국 정부의 영-일 CEPA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 기간을 영국이 FTA에 서명한 지 약 15년 후로 가정하고 있음
- 영-일 CEPA를 통해 영국 평균 실질 임금이 장기적으로 약 0.09%(8억 파운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일본으로의 수출이 활성화된다면 고용 기회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여 소득 증가 효과가 있을것이라 전망

② 관세 및 비관세 축소

- 영-일 CEPA 체결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제거 및 감소되며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는 규제 제한 역시 제거 혹은 축소됨
- 영국 수출업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무역 비용이 평균 약 2.8%p 절감할 수 있으며 영국에 대한 일본 수출업자의 경우 2.3%p까지 절감 예상
- 영국의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0.58% 증가, 수입은 0.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영-일 간 무역은 절약된 무역 비용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2019년 대비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③ 수출입 증가

- 영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약 75% 가량이 영국 생산품에 필요한 중간재 및 자본재로 추정. 영국 정부는 영-일 CEPA 체결을 통한 중간재 수입 증가로 영국 내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통합 및 가격 절감을 기대함

-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완제품 가격 감소로 인해 영국 소비자에 더 나은 품질과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④ 정치적 영향

- 영-일 CEPA는 영국이 EU 탈퇴 이후, 독립 국가로서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영국의 독자적 협상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평가를 받으며 영국 내에서 정치적 선전으로 활용
- 영국이 EU와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노딜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인데다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FTA 타결에 이목이 집중된 것에 비해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영-일 CEPA를 타결함으로써 독립 국가로써 FTA를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
- 영국정부 입장에서 일본은 세계 경제 3위 국가이자 영국의 수출 시장 중 4번째로 큰 비EU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타결한 역사적 자유무역협정으로 홍보

○ EU 외 국가로의 무역 확장 발돋움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외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장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영-일 CEPA 타결을 CPTPP 가입 및 회원 11개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에 중요한 단계로 여기고 있음
- 일본과 CEPA 타결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국의 우선 산업 분야의 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지원할 예정
- 또한, CPTPP 가입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영국 무역을 다변화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

□ 영-일 CEPA 체결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

○ 경제적 영향

- EU-일 EPA의 협정이행기간 종료('20년 말 부) 이전에 동 EPA가 서명되어 양국 내 활동 중인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이 확보

- EU-일 EPA의 캐치업 적용 및 즉시철폐 품목 동일적용과 함께, 일본 주력 품목인 △철도차량·부품, △전기제어관 등의 즉시 철폐를 추가 획득

* 영-일EPA 관세철폐율(품목수 기준) : (영→일) 약 99%, (일→영) 약 94%

- 재영일본기업*의 관세절감효과 활용이 기대되나, EU-영 FTA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일본기업의 경제효과는 미비할 전망으로, EU-영 교섭 불발시 제조업** 기업을 중심으로 EU로의 거점 이전 가능성 존재

* CEPA 활용 검토 일본기업비율 : (영→일) 53.5%, (일→영) 약 73.7% (JETRO, '20.10월)

** 영국진출 일본기업은 약 1,600개사로 제조업 분야의 영국진출비중 高(제국데이터뱅크)

○ 정치적 영향

① 영-일 관계 강화

- 영-일 CEPA를 계기로 영국은 CPTPP 참가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획득, 양국 협력관계 강화의 기반으로 작용

- 영-일 CEPA는 일본이 영국과 긴밀한 전략적 경제 파트너임을 공고히 하고 대외 정책 추진을 위해 무역을 비롯해 그 이상의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봄

* 영-일 양국은 CEPA 서명시 영국의 CPTPP 참가를 일본이 협력한다는 서한을 교환('20.10.23)

② 중국견제

- 일본은 既추진 외교·안보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 QUAD동맹(미국, 일본, 호주, 인도)에 영국과의 관계강화로 반중 정책 강화가 예상됨

- 한편 일본은 미국과 상품무역협정 및 디지털무역협정(2020년 발효)을 체결했으며 국내적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지역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대한 기대가 높음

4 CEPA 협정 체결에 대한 양국의 주요 반응

□ 영국 산업계 반응

○ 영국 자동차산업협회,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영-일 무역협정 환영

- 영국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CEPA는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자동차 무역 및 투자 관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
- 점진적 관세 철폐 및 규제 장벽 완화를 위한 업계의 우선순위 제공에 대한 증거를 고대

○ 서비스 및 금융 업계, “영-일 무역협정은 영국 기업에 기회 제공”

① 금융

- HSBC 전무이사(Ian Tandy), 영-일 CEPA는 영국 기업에 중요한 지점으로 양국 간 무역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안전성을 제공할 것이며 미래의 무역관계에 대해 확신이 필요한 영국 기업에 중요한 사건이라 전함
- 또한, 2021년부터 양국의 무역에서 연속성을 제공하여 이미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8,000개의 영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힘

② 기술

- TechUK CEO(Julian David), 포괄적인 디지털 무역 조항이 포함된 영-일 무역협정 체결을 환영하여 앞으로 긴밀한 양국의 기술 부문 간의 관계를 더욱 개선하고 양국 모두에게 무역과 투자를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
- 디지털 무역 조항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데이터 현지화와 관련한 조치 등을 포함한 협정의 혜택을 통해 일본 정부 및 일본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술 부문 지원 기대
- * TechUK는 2018년부터 JEITA(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와 협력, 영-일 기술 포럼 등을 운영하며 회원들간 긴밀한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음

○ 산업 협회 및 연합, 영국기업 및 영국에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CBI 총장 Dame Carolyn Fairbairn), 영-일 CEPA를 영국 경제의 중요한 지점으로 묘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환영할 것이라 밝히며 영국 농업 분야의 수출을 늘리고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아질 것으로 봄

- 영국 소기업 연합, 회장(Mike Cherry)은 중소기업을 위한 포괄적 조항이 포함된 영-일 무역협정을 환영하며, 영국의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주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이미 130,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산업을 성장시키고 신규 수출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힘
- 농축산물 및 식품업계, 일본을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 앞으로의 성장 기대
 - 영국 유명 비스킷 브랜드 Walkers Shortbread 전무(Jim Walker), 일본은 해당 기업의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이며 40년간 일본에서의 판매가 꾸준히 성장해왔다고 밝히며 협정 타결을 통해 확실성을 제공하고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시장에서 향후 판매를 지속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을 기대
 - 국제무역, 식품 및 음료 연맹 책임자(Dominic Goudie), 세계 최대의 식음료 순 수입국인 일본과의 협정은 기존 무역조건을 개선하고 품질 좋은 영국 제조 업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히며 특히 원산지규칙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추가적인 유연성을 환영함
 - 고품질 유기농 축산품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는 W 브랜드, 일본은 미술랭 스타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웨일즈 양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시장수요가 많아 관심이 큰 시장이라며 영-일 무역협정을 통해 일본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협정 타결을 환영

□ 영국 언론 및 정치계 반응

- 영국 야당, 영-일 CEPA 협정으로 인한 경제효과 그다지 크지 않다는 시각
 - 노동당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이 일본 수출기업에 막대한 혜택을 주는 반면, 영국 수출기업에는 그에 미치지 않는 혜택을 가져온다고 비판

- * 정부의 이번 거래에 대한 영향 평가에서 양국 무역에서 156억 6천만 파운드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 가운데 83%는 일본 수출업자의 수혜로 돌아갈 것이며 이번 협정으로 인해 일본기업이 얻게 될 이익은 영국기업에 비해 5배 수준(노동당 의원, Emily Thornberry)이라 언급
- 영-일 CEPA를 통한 GDP 증가는 0.07%에 불과하며, 이는 영국과 EU 간 무역협정 타결 불발시, 발생하는 무역 손실의 극히 일부
- 영-일 무역협정이 기존 EU-일본 협정보다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경제 모델링을 생산하지 못함

□ 일본 산업계 반응

-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 최소화 및 양국의 무역투자 확대 기대와 함께, 향후 영-EU 무역협정 및 영국의 CPTPP 참여에 기대
 - 원산지 규정 등 높은 수준의 자유도를 보장하는 영-일 CEPA를 통해 향후 비즈니스 환경의 예측가능성을 확보, 양국간의 무역·기술·투자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일본자동차공업회, 9.11)
 - 유럽지역에서는 EU를 포함한 지역 내 밀접한 서플라이체인이 구축되어 영-EU간 무역협정 체결이 무엇보다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협정 체결을 토대로 영국의 CPTPP 가맹 진전을 희망(경제단체연합회, 9.11)

□ 일본 언론 반응

-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일 CEPA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영-EU 무역협정이 일본기업의 영향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닛케이신문, 10.24)
 - 특히, 일본 자동차기업은 유럽전역에 공급망을 구축중이며 영-일 CEPA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
 - * 도요타자동차의 현지(영국)조달비율 약 50%
 - 영-EU FTA 연내 미체결시 영→EU 완성차의 10% 추가 관세가 발생, 영국 자동차업계 부담 추가 관세 비용이 약 6천억 엔에 달할 전망

□ 기타

- 영-일 CEPA는 제한적 내용을 담은 협정으로 정치적 의미가 크고 경제적 영향은 적을 것(서식스 대학 무역정책 연구원, Minaco 박사)
 - 영국이 독립적으로 첫 자유무역협정을 세계 3위 경제 규모 국가와 체결함으로써 영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완화될 것
 - EU-일 EPA를 보다 범위가 넓은 협정을 맺었다는 점과 이행기간 이후 EU-일 EPA 수준의 시장 접근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음
 - 이미 양국이 EU-일 EPA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양국이 추정하는 경제 이익은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영국 경제에 일본의 FDI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투자 보호 및 분쟁 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등 영국 정부가 일본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함을 지적
- 관리자협회(Institute of Directors) 정책자문관(Allie Renison), 영-일 CEPA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될 때 EU와 협정이 이뤄진다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 전함
- 민간 경제전문가는 일본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일 CEPA의 자유도 확대보다 조기 타결을 우선시한 것으로 분석
 - * 일본이 일-EU EPA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영국 진출 일본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연내 타결을 우선시한 것(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다나카 수석 이코노미스트)

Ⅲ 영-일 CEPA로 인한 우리 기업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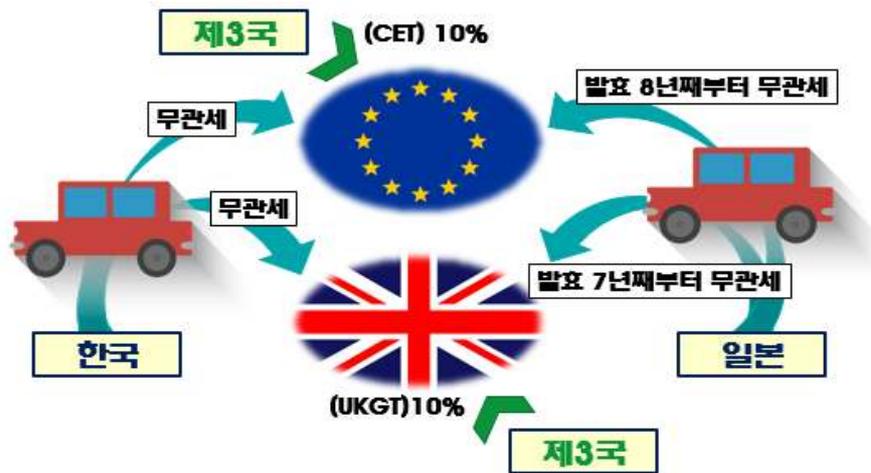
1 관세 철폐에 따른 우리기업의 품목별 대영 수출 경쟁력 분석

□ 자동차(HS코드 8703)

- EU-일 EPA와 더불어 영-일 CEPA 발효 이후부터 관세 인하 등의 혜택에 힘입어 일본의 대영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의 대영 자동차 수출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기까지 7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동안 우리 기업은 한-EU FTA 및 한-영 FTA를 통해 얻는 경쟁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비 필요

<예시> 자동차 HS코드 870322

한국		일본
무관세 “경쟁 우위 요소”	2021년	7.5%
무관세 “관세 혜택 동일”	2027년 2월 1일	무관세 “관세 혜택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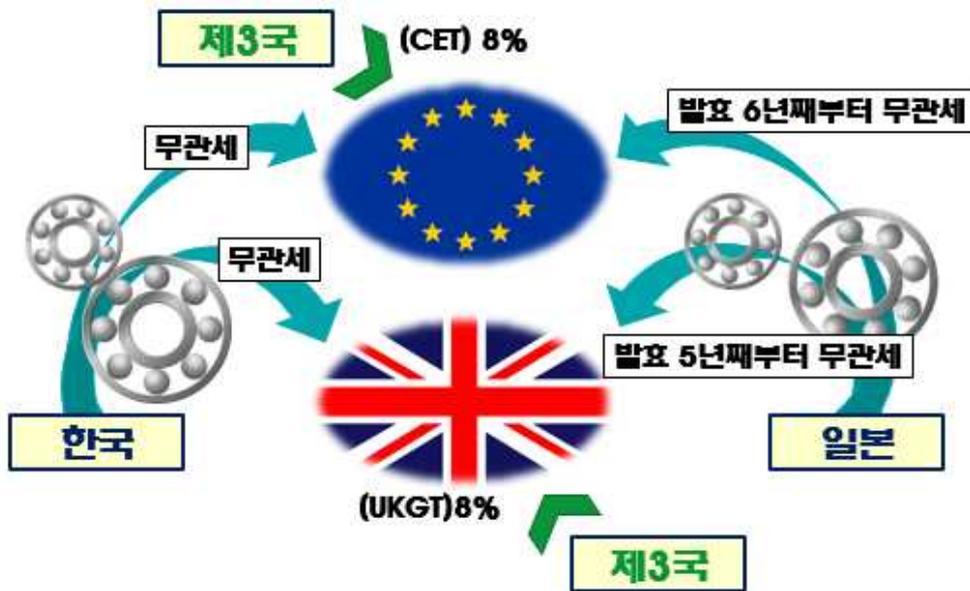
세부분목	관세 비교										CET	UKGT
	한→영	일→영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70310	11	0	7년째 철폐	3.8	3.1	2.5	1.9	1.3	0.6	0	5	4
	18	0	7년째 철폐	7.5	6.3	5.0	3.8	2.5	1.3	0	10	10
870321~24	0	7년째 철폐	7.5	6.3	5.0	3.8	2.5	1.3	0	10	10	
870331~33	0	7년째 철폐	7.5	6.3	5.0	3.8	2.5	1.3	0	10	10	
870340/50 60,70,80,90	0	7년째 철폐	7.5	6.3	5.0	3.8	2.5	1.3	0	10	10	

□ 불베어링 및 롤러베어링(HS코드 8482)

- 영국 글로벌 관세(UKGT)에서 비교적 높은 관세율(8%)이 정해진 불베어링 및 롤러베어링은 한-영 FTA가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 한-EU FTA와 같이 무관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영-일 CEPA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최대 7년째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영국 내 산업 및 바이어 동향을 파악하여 경쟁우위 지속 필요

<예시> 불베어링-기타 HS코드 848299

한국		일본
무관세 “경쟁 우위 요소”	2021년	5.3%
무관세 “관세 혜택 동일”	2025년 2월 1일	무관세 “관세 혜택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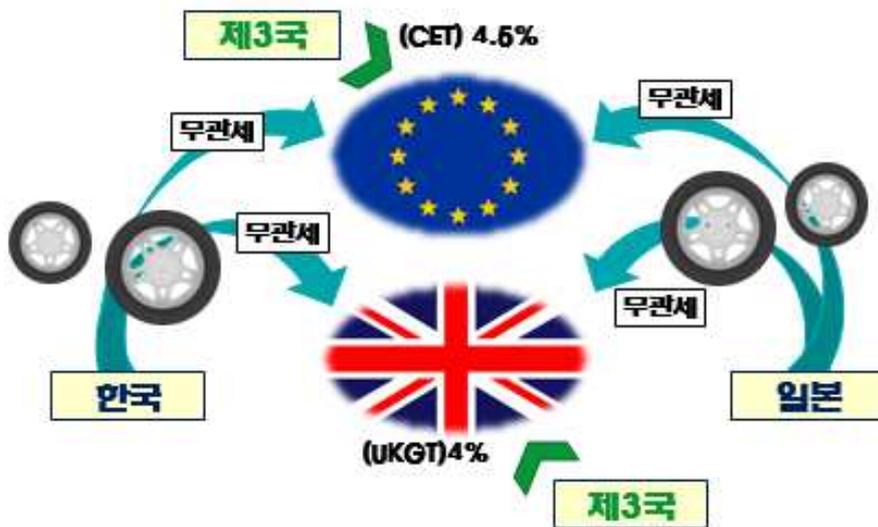
세부품목	관세 비교										CET	UKGT
	한→영	일→영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48210	0	7년째 철폐	6	5	4	3	2	1	0	8	8	
848220	0	7년째 철폐	6	5	4	3	2	1	0	8	8	
848230	0	5년째 철폐	5.3	4.0	2.7	1.3	0	-	-	8	8	
848240	0	7년째 철폐	6	5	4	3	2	1	0	8	8	
848250	0	7년째 철폐	6	5	4	3	2	1	0	8	8	
848280	0	5년째 철폐	5.3	4.0	2.7	1.3	0	-	-	8	8	
848291 90	0	5년째 철폐	5.3	4.0	2.7	1.3	0	-	-	7.7	6	
848299	0	5년째 철폐	5.3	4.0	2.7	1.3	0	-	-	8	8	

□ 고무타이어(HS코드 4011)

- 영국 글로벌 관세에 따라 4% 관세가 적용되는 고무 타이어는 영-일 CEPA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3년째부터 철폐됨
 - 해당 품목은 한국과 일본의 경합 품목 중 하나로 일본이 관세 철폐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경우에 대한 대비 필요
 - * 해당품목의 영국 수출은 한국이 5위 차지, 일본은 9번째 (중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 네덜란드, 터키, 폴란드, 일본, 이탈리아 순)

<예시> 타이어 HS코드 401110

한국		일본
무관세 “관세 혜택 동일”	2021년	무관세 “관세 혜택 동일”



세부품목	관세 비교					CET	UKGT
	한→영	일→영	1st	2nd	3rd		
401110	0	0	-	-	-	4.5	4
401120	0	0	-	-	-	4.5	4
401130 00	0	3년째 철폐	2.3	1.1	0	4.5	4
401140	0	3년째 철폐	2.3	1.1	0	4.5	4
401150	0	0	-	-	-	4	4

□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영향

- EU-일 EPA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경합 품목에 대한 수출 환경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특히 자동차의 경우, 브렉시트와 관련한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본 브랜드의 영국 내 생산 공장 철수 등 원인으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 자동차 【8703】 (7년째 철폐), 축전지 【8507*】 (대부분 품목 관세 철폐)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 터빈 【8411*】 (관세 철폐), 차량용부품 【8708】 (최대 5년째 철폐)
- * 해당 제품은 UKGT 관세 철폐 및 인하 품목으로 바이어 동향 파악에 주의해야 함

< 일본의 대영 수출 상위 10개 품목('19년) >

(단위: 백만 파운드, %)

순위	HS	품목명	수출액	한→영	일→영	CET	UKGT
1	710813	금	1376	0	0	0	0
2	841191	터보제트, 저보 프로펠러, 그밖의 가스터빈	621	0	0	2.7	0
3	870322	자동차	352	0	7년째 철폐	10	10
4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296	0	0	0	0
5	860310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	271	0	0	1.7	0
6	370790	사진용 화학조제품	196	0	0	0	0
7	850790	축전지*	163	0	0	최대 2.7	최대 2
8	850440	정지형 변환기	147	0	0	0	0
9	870323	자동차	142	0	7년째 철폐	10	10
10	870360	자동차	136	0	7년째 철폐	10	10

* 품목별 확인 필요

자료 : Global Trade Atlas,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

< 한국의 대영 수출 상위 7개 품목('19년) >

(단위: 백만 파운드, %)

순위	HS	품목명	수출액	한→영	일→영	CET	UKGT
1	870322	자동차	304	0	7년째 철폐	10	10
2	870340	자동차	255	0	7년째 철폐	10	10
3	870321	자동차	249	0	7년째 철폐	10	10
4	880330	비행기 부품	234	0	0	2.7	0
5	271019	기타 연료*	126	0	0	0	0
						4.7	4
						3.5	2
						3.7	2
6	847330	기계류 부품	88	0	0	0	0
7	851712	셀룰러 및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76	0	0	0	0

자료 : Global Trade Atlas,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

2 일본의 대영 수출 상위 산업군 전망

□ 기존 수출 상위 분야

- 대영 수출은 공업품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광공업품 100% 관세철폐에 따라 기계·기기분야 수출확대 전망
 - 2019년 일본의 대영수출은 1조 5,342억엔으로, △기계류 및 운송기계류(60.1%), △특수취급품(재수출품, 금)(23.1%), △화학제품(5.5%), △잡제품(4.5%) 등 공업품 중심의 시장이 형성
 - * 운송용기기(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원동기, 건설기계), 전기기기(전지) 분야의 수출량이 35.7%를 차지중(2019년 기준 5,797억 엔 규모)
 - 특히 차부품의 경우 약 92%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비용 절감 효과 발생

□ 확대 예상 분야

- 철도용 차량, 터보제트, 전기제어반 분야의 영국진출 노력 예상
 - 기존 EU-일 EPA 내 단계적 철폐품목(철도용차량 및 부품, 터보제트 및 부품 등)이 영-일 CEPA 체결에 따라 즉시철폐로 전환
 - 이에, △철도차량 및 시스템, △엔진 분야의 영국 시장 진입장벽이 완화, 가격경쟁력을 통한 시장진출 노력이 활발해질 전망

IV

시사점 및 대응 방향

1

시사점

□ 영국의 무역영토 확장에 대비

○ 영국은 다양한 무역 파트너와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

- 영국은 향후 3년 동안 영국 무역 80%를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 외 다양한 무역 파트너 국가와의 상품 및 서비스 교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앞으로 영국은 호주, 일본, 뉴질랜드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싱가포르*, 라틴아메리카, 캐나다 등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다져나갈 것으로 예측

* 영-싱가포르 FTA 체결(12.10)

- 따라서 우리 기업은 무역전환 및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CPTPP 가입 추진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무역영토 확장을 위한 무역협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PTPP 가입 추진 중
- CPTPP는 브렉시트 이후 EU 탈퇴를 보완할 수 있는 대형 교역 파트너이며, CPTPP 가입을 통해 영국의 수출기업 확대, 영국의 산업 성장을 지원하며 무역링크 및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경제 안보 강화를 도모
- 또한, 관세 혜택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등 新경제 분야의 협정을 추진하여 영국의 경제 구조에 보다 유리한 협정으로 평가
- 아울러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 확보 및 장기적 이익 증진을 기대

< 영국의 EU 외 국가 무역협정 체결 현황 >

(단위: 백만 파운드)

국가 및 연합	총 무역액 (2019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Andean countries)	2,893
캐나다	22,418
카리브 연안 국가	3,046
중앙아메리카	1,411
칠레	2,171
동남아프리카 (ESA)	1,569
이집트	3,503
페로제도	295
조지아	183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26,747
이스라엘	5,014
요르단	548
코소보	10
레바논	849
리히텐슈타인	159
모로코	2,251
북 마케도니아	1,774
피지, 파푸아뉴기니	196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9
싱가포르	17,636
한국	11,777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SACUM)	11,875
스위스	37,063
튀니지	561
우크라이나	1,566
베트남 (원칙적합의)	5,706

자료: 영국정부 웹사이트(2020년 12월 5일 기준)

□ 영국의 독자적 관세체계 도입에 따른 수출 시장 환경 변화

- 이행기간 이후 영국은 독자 관세체계인 영국글로벌관세(UKGT) 적용
 - UKGT는 EU역외공통관세(CET)를 대체, 영국 경제에 맞춤형으로 설계해 EU 역외공통관세보다 간단하며 사용이 쉽고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함
- UKGT 세부 내용
 - 관세율표를 단순화, 비교적 낮은 관세 상품의 경우 0%로 관세를 철폐했으며 소수점 이하 세율을 인하함
 - 영국 내 생산이 없거나 생산이 제한된 상품에 대한 관세 역시 철폐해 영국의 전체 교역 60%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
 - 따라서 우리 기업의 수출 품목 중 UKGT에 따라 인도, 중국 등의 국가로부터의 대영 수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수 있으므로 일본의 대영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동향 파악도 중요

□ 한-영 FTA 활용 필요성

- 한-영 FTA, 영국의 입법 절차 완료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
 - 코트라 런던무역관은 한-영 FTA 발효 초기, 관세 및 통관, 인증 등에서 우리 기업의 혼란과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할 예정
 - 한-영 FTA 활용지원센터: (이메일) fta@kotra.co.uk (전화) +44-20-7520-5319
- 한-영 FTA 주요 내용
 - 한-EU FTA와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여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
 - 원산지 관련 3년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
 - 한국산 제품을 EU를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해도 3년간 한시적으로 인정
 -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GI)를 그대로 인정하여 영국 측 주류 2개 품목 한국 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

□ 영국과 무역 촉진을 통한 일본의 동북아 포함 아시아에서의 입지변화 주목

- 영국의 CPTPP 가입 지원을 통한 일본 주도의 경제·무역체제 형성
 - 영국은 영일EPA를 계기로 일본이 주도중인 CPTPP 참여 의사를 표명, 타 CPTPP 관심표명국(태국, 콜롬비아 등)에 대한 자극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영국의 참여지원 및 타국의 가입 유도를 통해 일본 주도의 CPTPP 체제를 유지, RCEP과의 연계로 일본중심의 GVC 형성에 주력할 전망
- 영일 관계강화를 통한 대중국 견제 기조 지속
 - 영국은 인권(홍콩, 신장위구르), 해양문제(남중국해 군사적행동) 등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대립 기조를 유지중
 - 일본은 인도태평양전략 및 QUAD동맹(美-日-濠-印)에 영국과의 관계강화를 더해 대중국 견제체제를 강화할 전망

2

우리기업 대응방향

□ 한-영 FTA를 통해 선제적으로 선점한 경쟁우위 유지 필요

- 2019년 EU-일 EPA 발효에 이어 2021년 영-일 CEPA 발효가 유지됨에 따라 일본의 대영 수출품이 한국과 경쟁 요소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자동차, 타이어 등은 단계적 관세 철폐 품목이나 한국의 대영 상위 수출품목 중 대부분의 제품이 관세 철폐
 - 따라서 지금까지 한-EU FTA 등으로 얻어온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이어 및 파트너사의 동향파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영국의 소비자 및 산업 수요에 맞춘 수출 전략 수립 및 제품·브랜드 경쟁력 확보
 - (그린 리커버리) 중공업 분야로부터의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 자연 복구 및 보존 분야 육성, 자동차 산업 녹색 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코로나바이러스부터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을 반영하는 수출 전략 수립 필요

- (저탄소 경제) 영국의 순제로 정책에 힘입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현재 개발 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외에도 신규 프로젝트나 유지보수에서 기술, 서비스, 기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EU 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공급재의 납품을 위한 사업 계획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수소 분야) 영국정부는 산업 및 운송 부문에 대한 전력 공급 대안으로 수소 분야에 투자, 대규모 저탄소 수소 생산 플랜트를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해당 산업의 성숙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영국 진출 기회 활용

- 한-영 양국은 한-영 FTA를 통해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에서 양자 간 협력 강화하기로 약속
 -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한-영 신재생에너지 협력 모델 개발 등 해당 분야에서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양국 간 수요 및 유통망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 양국은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응, 양국이 혁신의 파트너로서 세계 첨단 유망산업을 주도하는 산업·혁신기술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
 -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유망 5대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공동펀딩 R&D 사업* 출범, 양국의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기술협력이 본격화 기대
- * '19년부터 양국이 각각 매년 30억원, 200만 파운드를 펀딩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R&D 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영국:혁신청)

□ 일본 산업 전략 파악

- 영-일 CEPA 타결에 따른 일본기업의 움직임은 제한적
 - 영-일 CEPA는 EU-일 EPA 합의 내용을 계승한 협정으로, 동 협정 타결에 따른 일본기업의 신규기회 창출은 제한적일 전망
 - 영-일 CEPA에 따라 대영 수출의 불확실성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일본-영국-EU간 공급사슬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어 기업의 전략수정 움직임 미관측
- 영-EU 무역협정 체결여부가 일본기업의 유럽전략 전환점으로 작용 전망
 - 영국진출 일본기업은 자동차·제약·전기 등 제조업분야가 중심으로, 유럽시장의 진출창구로서 영국을 활용 중
 - 주요 일본 제조 기업은 EU-영 EPA 체결 여부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부기업의 영국 투자 축소·철회 움직임이 확인*
 - * 닛산은 영국공장의 철수를 결정, 이에 따라 관련 부품사의 영국이탈 움직임 관측
케이힌(전자부품), 유니프레스(차체골격), 카사이공업(내장부품), 티에스테크(시트) 등
- 영-일 금융분야 협력 확대 기대
 - 도쿄는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재도약을 위해 금융기업 유치를 노력중으로, 런던과의 금융 분야 협력 확대(도쿄-런던 MOU 체결('17.12월))를 통한 금융도시 브랜드 구축중
 - 영-일 EPA 체결으로 금융·서비스 분야 규범이 정립, 일본정부는 진입장벽 완화를 활용하여 영국 금융·핀테크 분야 기업 유치 확대에 주력할 전망

V

기타 참고자료

※ 일본진출 영국기업 현황

<금융>

- (HSBC 홀딩스) 세계최대급 금융 그룹으로 1866년 요코하마에 “홍콩상해은행”을 개설한 이래 일본 내 banking, 시장분석, 자산운용 등 사업 추진 중
- (버클레이즈) 투자은행 부문에 해당하는 버클레이즈 캐피탈 증권을 운영중

<가전/생활용품>

- (다이슨) '15.4월 브랜드 최초의 Demo Shop을 도쿄 오모테산도에 개장
- (유니리버) 주방·화장실 용품 중심의 소비재 제조사로, 일본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화장품을 중심으로 사업 전개중(총 제품 중 화장품 비중 90% 이상)

<자동차>

- (벤틀리) 과거에는 홍콩계 종합상사인 Comes가 수입/판매를 담당하였으나, '02년 이후에는 폭스바겐 산하의 벤틀리 모터즈 재팬이 수입을 담당

<제약>

- (GSK)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사업을 전개 중으로, 의약품, 백신, 헬스케어제품 등을 중심으로 일본사업을 전개중
- (아스트라제네카) 스미토모 화학과의 합법법인을 설립, 치료약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전개 중

<컨설팅>

- (PwC) '99년부터 “PwC Japan 그룹” 체제 하에 감사, 컨설팅, 딜 어드바이징, 세무, 법무, 연구법인 등을 운영 중
- (Ernst&Young) 감사, 컨설팅, 딜 어드바이징, 세무 법인 등을 운영 중

<스타트업>

- (Skyscanner Japan) 일본 최대 검색 엔진인 Yahoo! JAPAN과의 JV 형태로 2015년 7월 설립, 야후 검색에 <항공권 검색> 기능을 런칭 이후 일본의 관련 대기업들과 활발히 연계 중
- (GRM Consulting) 영국發 제품개발 컨설팅 스타트업으로 2016년 일본 진출, 기계 및 기계 설계 시뮬레이션을 주축 제품개발 서비스 제공(자동차, 우주, 군사, 제약 업계 대상)

작 성 자

- 런던무역관 김민정
박지혜
- 도쿄무역관 김승호
하세가와 요시유키

Global Market Report 20-036

영-일 CEPA 체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20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런던무역관
(44-20-7520-5300)
I S B N | 979-11-6490-608-6 (95320)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